

“光化門의 異邦人”

“교보빌딩 주변 이야기”

光化門은 서울의 中心地이기 전에 우리나라의 심장이며 얼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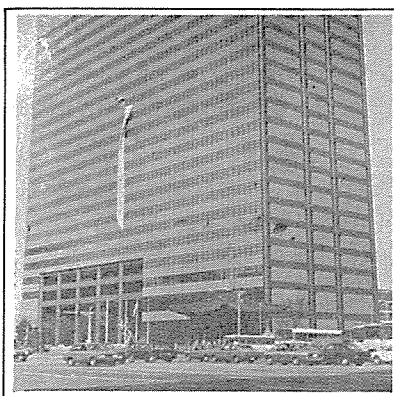
나라를 움직이는 정치·경제·문화의 맥박을 이곳 광화문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게 한다. 비단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碧眼의 外國人이 와서 본다고 해도 냉큼 이곳이 코리아의 얼굴이고 심장임을 알만한 곳이다.

절벽같은 고층빌딩하며 雄志를 품은듯 뜬금없는 건물들이 보논이의 심금을 사로잡고, 새삼 隔世之感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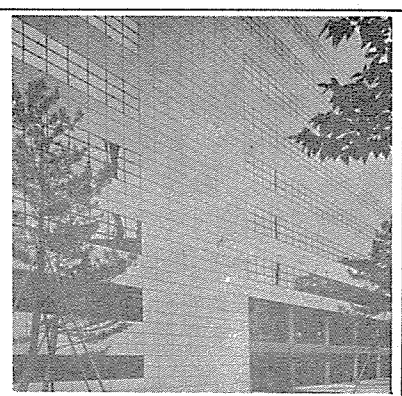
이 要地에 최근 폭과 높이를 자랑하는 새 人物(?)이 등장해서 世人의 눈을 더 커지게 했으니 그가 바로 大韓教育保險社屋, 즉 교보빌딩이다. 한데 그 스케일이나 단장한 모습은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스타의 탄생인데 우리나라를 자주 왕래하는 日本人들이나 우리나라사람중 역시 日本나들이를 자주하는 이들이 금새 고개를 가웃동하며 한다는 소리가 “어디서 많이 본듯한데...”한다.

알고보니 그 사람들의 눈설미가 꽤 정확해서, 우리에게 새 主人公인 교보빌딩의 형벌쯤되는 친구가 日本에 居住(?)하고 있는데 바로 駐日美國大使館이 그였다. 그러니까 두 主人公은 同胞兄弟間으로 設計者가 같은 美國人이라는 것.

한마디로 국산품보다 외계 좋아하나는 우리습성탓인지 그정도 건물 짓는 것도 우리네 品質(?)을 못 미더워서 그 貴한 外貨를 쥐가며 꼭 그렇게 해야 했는가가 의문스럽다.



□ 교보빌딩



□ 주일미대사관

굳이 우리것을 남이 가로 채 가서 배가 아프고 해놓은 것이 마땅치 않아서 마음이 편치 못하다는식의 편협한 심정에서가 아니라 곳(光化門)이 곳인 만큼 우리도 이 정도쯤은 우리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랑도 오가는 外國人에게 해서 나쁠것 없고, 더더구나 하필이면 이웃이면서도 결국 먼나라인 日本에 있는 건물을 닮은 것을 光化門이요 또「랜드마크」쯤 되는 건물로 세워놓아야 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앞선다. 바로 눈앞에 계신 이순신장군 뵈기가 송구스럽다.

뒷얘기지만, 日本을 자주 드나들던 그 건물 주인쯤 되는 분들이 동경에 있는 주일미대사관건물을 보고 그걸 그대로 광화문에 세우자고 주장해서 설계가 「씨저펠리」씨에게 의뢰했는데 설계자가 당초 내용은 안(案)은 지금것과는 다른 팔각형건물 세개를 높이가 다르게 배치한 것이었으나 건축주 고유(?)의 우격다짐에 콧대높은 外國人 설계자도 못 당하고 결국 평론가의 말대로 “作品이 마치 던져버린것처럼 무책임한” 상태로 거기(光化門) 그렇게 놓여있게 된다.

建築主의 어거지가 비단 어제오늘의 골치거리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代表할만한 기업이고 더구나 광화문네거리에 「랜드마크」쯤되는 건물을 지을만한 힘을 가진 건축주라면 한번쯤 나라 안팎을 돌아볼줄 아는 안목이 있을법한데..., 하는 아쉬움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평론가들은 우리나라에 外國人이 지은 건물들이 더러이지만 건축은역

시 우리손으로 지어야한다는 것이다. 건축물은 그나라의 정치·경제·문화사회의 영향에 민감하고 자연조건에 기막힌 변화가 요구되는 무생물이면서도 숨쉬고 활동하는 생물체로서만 들어야하기 때문에 속사정을 잘 아는 우리네 사람에 의해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구태여 外國人이 관여한다면 엔지니어링부분에 자문정도로 그쳐야 적당하다고 협력의 한계를 긋는다.

아물든 外製 좋아하는 건축주의의 식구조도 문제지만 그걸 그냥 방관한 당국의 책임도 뒤송송하다.

끝으로 평론가는 작가의 의도가 제대로 살아있지 않다고 꼬집고 “일종의 수집 취향같은것이 보이죠. 주차장 들어오는 부속빌딩이라든지 바로 뒤에 사마귀같이 온실이 붙어있고 지하 아케이드의 라이팅웨이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러한 것들이 마치 갈비뜯고 뼈다귀를 던져주는듯한 무례함을 느꼈어요. 굉장히 불쾌하더군요. 그러한 오브제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먼지라는 털어줄 수 있는 서비스 정신을 보였으면 좋았을텐데...”

교보빌딩이 서있는 입장을 보는작도는 물론 각기 다르다. 다만 웬지 모르게 갓쓰고 두루마기 입은 서양인이 우리네 시선을 흠뻑끌고 있어 하는 말이다.

부디 사람마저 한국인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겠다. 야니, 이미 그렇게 될수 있었지 않았는가-. (<*)

청탁풍조 배격하여 문화국민 긍지갖자.